

## 미국의 예외주의와 타자들의 공동체: 토니 모리슨의 『자비』

박 귀 숙  
(경상대학교)

Park, Gui Suk. "American Exceptionalism and a Community of Others: Toni Morrison's *A Mercy*."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4.2 (2018): 17-42. This study examines the devastating effects of American exceptionalism of the European settlers in American colonies on a community of displaced people in Toni Morrison's *A Mercy*. In *A Mercy*, Morrison, in relation to American exceptionalism, explores the history of a heterogenous, multi-ethnic community in the seventeenth century, the period before the time of the American nation. It was the chaotic era of American origins when slavery was not yet institutionalized and thus racism was not connected to slavery. Under the exceptionalist myth of the chosen and the others, good and evil, the community of others, once dependent on each other with familial ties, ended up in split and disruption while racism joined slavery as a result of the ideology of separ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American exceptionalism, displacement, race, separation, slavery

### I. 서론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은 그녀의 작품을 통해 흑인의 트라우마의 치유와 회복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모리슨은 노예제가 흑인 가족과 부족의 와해를 가져오며, 한 사람이 속한 문화적 관습과 언어로부터 분리와 추방(displacement)의 결과를 가져옴을 작품 속에서 재현한다. 나아가, 모리슨은 미

국 역사를 통하여 백인 주류 문화의 ‘추방’이 어떻게 자아 붕괴의 위험을 가져오는지 숙고하여 왔으며 또한 모리슨은 문화적 거절을 인식한 한 개인이 혹은 공동체가 어떻게 주류 내러티브를 넘어서 그들의 바람이 반영된 삶을 창조할 수 있는지를 탐색해왔다. 모리슨이 일관되게 관심가지는 주제는 문화적 고아의 상태(Orphanage)이다(Schreiber 157). 모리슨은 지배 문화의 주변인 혹은 타자인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상황과 트라우마를 이해하는지,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미래 세대들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를 탐구한다. 그래서 모리슨은 “진정한 통찰의 장소”가 되는 관찰 지점인 가장자리에서부터 글을 쓴다(Schreiber 161). 이렇게 모리슨은 주류내러티브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한부여를 하고 그들의 주관성을 없애는 시선을 폭로한다. 그리하여 모리슨은 독자가 미국의 정체성을 다시 형성하고 다시 상상하길 촉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녀는 과거의 이방인이 ‘모두의 집’인 미국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모리슨의 이전 작품들이 미국 문화 속에서 어떻게 노예제의 근원적인 트라우마가 지속되는가를 탐구하는 반면에 모리슨의 아홉 번째 소설 『자비』(A Mercy)는 인종과 연결되기 전의 노예제에 대해 말한다. 『자비』에 대한 한 인터뷰에서 모리슨은 미국이 건국되기 전의 시대, 경쟁하는 제국주의가 신세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던 시기에 대한 그녀의 관심이 17세기의 역사에 대한 연구로 자신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Neary). 『자비』는 노예제가 제도화되기 전, 다른 사람을 소유하는 일이 만연했던 1682에서 1690년까지의 미국을 배경으로 한다. 이 시기는 노예제와 인종차별주의가 밀접히 연결되기 전 기간이다. 텍스트 속에서 미국이기 전의 미국에 관한 모리슨의 묘사는 “독립국가의 단일문화적인 내러티브가 적용되기 전에 있었던 이 나라의 다중 문화의 본질을”(Royonon 80) 보여준다. 특히 그녀가 관심을 가진 유럽에서 온 소유권을 빼앗긴 사람들과 계약 노동자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로 구성된 신세계의 노동력은 문화, 민족, 언어가 다른 이질적인 집단을 구성한다. 그들의 다른 태생에도 불구하고 이 이민자들은 인종차별주의의 정책과 제도에 의해 백인과 흑인으로 그들이 분리되기 오래전부터 예속상태라는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Karavanta 724).

모리슨은 이 혼돈스럽고 유동적인 17세기 미국 식민지 시대를 『자비』의 배경으로 두고 미국의 기원이 되는 이 시기와 미국의 예외주의를 연결하여 본다. 예

외주의 관점에서 미국은 부패한 유럽의 구세계(Old World)의 정부, 교회, 그리고 사회 속에서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 잡기위해 헌신한 선택받은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구세주의 나라(redeemer nation)로서 예외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다. 사실 미국의 예외주의는 “미국 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현대의 이론들에 내포되어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들 중 하나”(Madsen 1)이다. 『자비』에 나타난 미국 기원에 대한 아이러니한 시각에서 알 수 있듯이, 선택받은 사람들의 신화는 선택된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유해한 이분의 분리에 입각해 있다. 그것은 실제로 원주민,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땅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정착민들의 학대를 악화시키고 백인 이외의 사람들을 노예화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계층화된 유럽문화를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은 이 시기의 미국은 땅을 소유하고 부를 가진 계층이 존재하며 그들은 자신들이 생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노동력에게 의존한다. 땅을 경작하기 위한 노동력에 대한 필요는 희생양에 대한 심리적인 필요와 결합한다. 모리슨은 교묘하게 이 재산을 가진 “자유로운” 선민들의 잔인함에 대해 묘사한다. 식민지에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과 나머지를 분리했다는 신념은 신성화된 인종차별주의를 낳는 한편, 그들의 높은 도덕적 기준에 대한 그들만의 특별한 예외를 용인하고 합법화한다.

모리슨은 『자비』에서 식민지 정착민들이 미국에 가져온 신세계에 대한 고매한 희망과 그 뒤에 일어나는 미국의 공동체의 불화의 연관성을 추적한다. 텍스트의 내러티브는 흑인 노예인 플로렌스의 이야기와 함께 등장인물들 각각이 전하는 다른 많은 플롯라인에 의지한다(Wagner-Martin 136). 텍스트는 식민지로 이송된 흑인노예에게서 태어난 흑인 노예소녀인 플로렌스(Florens)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인디언 리나(Lina), 혼혈아 소로우(Sorrow), 계약하인인 유럽인 윌라드(Willard)와 스컬리(Scully), 자유로운 흑인 숙련공인 대장장이, 유럽 여성인 레베카(Rebekka) 그리고 토지 소유자 제이콥 바크(Jacob Varrk)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탐구한다. 모리슨은 『자비』를 통해, 선민과 저주받은 이라는 이분의 신학, 신과 악마라는 이분의 신학에 기반을 둔 인종차별주의가 노예제와 합류하는 과정을 밝힌다. 또한 그녀는 등장인물들 사이에서 형성된 불안정한 공동체의 해산이 그 결과로서 일어남을 보여준다.

많은 비평가들이 『자비』가 기존의 작품처럼 “미국의 인종차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거나(Cantiello 173), “미국의 인종에 근거한 노예제의 시작”에 대한 탐험이라 보기도 하고(Harris), 불평등한 권력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국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확장한다고 주장한다(Mueller 160). 혹은, “세상의 추방된 자들의 이야기”를 썼다고 논하거나(Montgomery 635) 미국 기원에 대한 내러티브를 주변인의 입장에서 다시 쓰는 것이라고 평하고 내레이터의 다양성을 관찰했다(Babb 148). 그러나 이 역사 소설의 문학적 특질의 기초에는 미국의 사회적 불화를 유발하는 미국의 예외주의 신화에 대한 모리슨의 사회적 비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비』에서 선택받지 못한 타자들이 만든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에 대해 신세계의 예외주의 신화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II. 예외주의, 인종, 그리고 노예제

스파노스(William V. Spanos)는 예외주의의 기원을 신세계에서의 청교도들의 임무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파노스는 “구세계에서의 이주와 신세계에서의 임무는” “신성하게 그리고 초월적으로 정해졌다는 미국 청교도들의 믿음”이 미국 국가의 정체성의 기원임을 주장한다(188). 그러나 이 신성한 부름에는 자기만족과 상습적인 비행의 형태로 존재하는 “근원적인 위협”이 있다(193). 스파노스가 주장하길, 청교도들은 신세계를 쇄신하기 위해 “위기를 생산하고 공공의 불안 위기를 부추기며,” “항상 임무의 수행을 위협하는 주로 패배시킬 수 있는 적”에 대해 지속적인 투쟁을 할 필요를 인지했었다(197-98). 스파노스는 이처럼 이미 패배한 원주민과 노예 집단에 대한 미국 예외주의의 이분의 논리와 증오에 대해 설명한다. 스파노스의 설명과 유사하게, 『자비』 속에 묘사된 각각의 종교 집단 속에 명백한 공공의 불안은 이미 항복한 적에 대해 구성원들을 결속시킨다.

피즈(Donald E. Pease)는 미국 역사 속에서 미국의 환상이 억압한 트라우마와 같은 사건들, 예를 들면, “이주 집단의 린치와 인종 청소,” “인디언 대학살”과 같은 사건 이면에 자리 잡은 “승리 문화의 저속한 이면”을 발견한다고 말한다(38). 피즈에 의하면, 미국의 예외주의 이념 아래 시민권의 이익을 거부당한 항

상 배제된 소수집단인 미국의 타자들이 미국 역사 속에 존재한다(38). 이들은 미국 국가 내에서 인종적으로 분류되고 배제된 “유령 이방인들”(Kaplan 50)이다. 『어둠속의 유희』(*Playing in the Dark*)에서 모리슨은 “명백히 미국인이 아닌, 명백히 타자인”(48) 미개한 흑인 노예들이 미국이 예외적인 운명에 선정되도록 도운 조력자들이라고 말한다. 신세계는 세상에서 전례 없는 인간존엄에 대한 예외적인 미국의 꿈을 향해 갔지만 그것은 그 약속에서 제외된 흑인 노예들이라는 “어둠고 지속적인 존재”(Playing in the Dark 46)에 의존한 것이다. 미국 역사 속에서 위조된 아프리카인의 이미지는 자유롭고 선택받은 “예외적인 미국인”(Playing in the Dark 52)을 위한 필수적인 배경인 것이다.

모리슨은 『자비』에서 미국 대륙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에 대해 묘사한다. 그녀의 어떤 소설에 비해서도 예외적인, 이 집중적인 묘사는 미국의 초기 식민지 시대를 강조한다(Wagner-Martin 148). 텍스트 속의 등장인물들에게 신세계는 자연의 천국으로 보이는데 이 신세계의 아름다움은 예외적인 위치에 대한 미국의 주장을 또한 지지하는 요소이다. 레베카는 버지니아(Virginia)에 도착했을 때 “노아 이후에 그대로 보존된 숲”(12)을 발견한다. 레베카는 깨끗한 개울과 풍부한 새와 사냥감에 기뻐하며 환호한다. 미국은 유럽에서 도착한 정착민들에게는 거의 에덴과 같은 곳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 모리슨은 다양한 신념을 가진 집단들을 재현해 냄으로써 미국의 임무와 정체성에 대한 신화를 풀어낸다. 각각의 집단은 그 자신의 선택받은 지위에 대해 확신하며 하나님의 특정한 승인에 대해 확신을 가지며 신념의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신의 비난을 확신한다. 이들은 텍스트 속의 예외주의의 미국인들이다. 그들은 근시안적이고 편협한 신조 아래, 단지 유럽인에게만, 주로 남자들에게만 유용한 구원을 믿는 옹호자들이다. 이들 중에는 장로교도들(Presbyterians)로 이루어진 한 공동체가 있는데, 그들은 이교도인 인디언 리나를 받아들이고 개종시킨 뒤 그녀를 추방한다. 텍스트 속에는 한 정교분리주의 신도들(Separatists)도 등장하는데 이 재세례파들(Anabaptists)은 자신들을 선택받은 사람으로 단언하고 다른 이들로부터 자신들을 엄격히 구별한다. 예외주의자 속에는 또한 청교도 집단(Puritans)도 있다. 그들은 뉴 잉글랜드(New England)의 과부 일링(Widow Ealing)의 집에서 플로렌스를 마주했을 때 “이 아이가 악의

추종자”(111)라는 확신을 가지고 검은 피부색의 플로렌스를 마치 강간하듯 훑어 보며 관찰한다. 이 청교도들은 눈이 사시인 제인(Jane)과 남성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땅을 소유한 과부인 그녀의 엄마를 공격 목표로 삼는다. 그들이 비록 신념에서는 서로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집단들 각각은 소수만을 선택하고 구하는 화난 신의 존재를 믿는다.

국가의 탄생에 대한 모리슨의 내러티브에는 백인을 백인이 아닌 인종과 구별하는 인종차별주의가 선택받은 미국인과 그들의 타자들 간의 차이를 만들기 위해 정착의 기원에 등장한다.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백인 정착민에게 측량되지 않은 땅은 착취에 준비가 된 개방적인 공간”이며 그곳의 다른 거주자는 “그곳의 식물과 동물로부터 식별할 수 없는 인간이하”의 존재들인 것이다(Baillie 191). 『파라다이스』(Paradise)에 대한 인터뷰에서 모리슨이 말한 것처럼, “선택받은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배제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Marcus). 미국의 예외주의는 선택받은 사람과 그들을 선택한 신이 백인이라고 가정한다. 그 핵심에 자리 잡은 것이 인종차별주의이다. 『자비』에 대해 모리슨은 “인종차별주의를 노예제로부터 분리하는”(Bass 87), 그리고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노예제를 보는”(Norris) 프로젝트라고 설명한다. 노예제가 빠르게 미국에서 인종화 되었는데 그것이 선택받은 사람이 누가 그곳에 없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임을 모리슨은 발견한다. 『자비』는 미국의 정체성이 흑인과 원주민들의 희생으로 구축되기 시작하던 때에 자유의 의미를 탐험하고 있다(Griffin 127).

『자비』에는 분리와 차이를 강조한 예외주의 운명의 가정 아래에 억눌린 한 공동체가 묘사된다. 제이콥 바크는 이 공동체의 농장주이자 무역업자이다. 리나는 기독교 사람들에 의해 개종되었으나 나중에 그들로부터 버림받고 제이콥에게 팔린 미국 인디언이다. 고아가 된 혼혈인 소로우는 난파된 배에서 살아남은 고아이다. 이후에 바크가 목재와 교환하여 그녀를 받아들였다. 어린 흑인소녀 플로렌스는 도르테가(D'Ortega)가 자신의 빛 대신 바크에게 넘긴 노예이며 바크의 아내 레베카는 그녀의 아버지가 바크에게 팔아 그의 아내가 되었다. 남자인 윌라드와 스컬리는 원 주인의 “임대받은 땅 대신에”(7) 바크 밑에서 일하는 고용계약을 맺은 하인이다. 이 등장인물들이 각기 다른 장(chapter)에서 각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한 목격자로서의 작가의 위치는 효과적으로 텍스트의 주제인

분리와 단절된 소통을 나타낸다. 텍스트의 형태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안전한 사회적 공간”(“Home” 10)을 이루고자 한 공동체의 분열과 몰락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명상을 이끌어낸다.

모리슨은 주로 북쪽 지역을 텍스트의 배경으로 사용하는데 이러한 배치는 그녀가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는 북쪽과 노예를 소유하는 남쪽을 대립화하는 역사를 붕괴할 수 있도록 한다. 모리슨의 소설은 지리학적인 경계를 가로질러,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과 유럽에서 온 백인 계약하인들과 원주민을 연결하여 노예제의 문제를 이해한다. 『빌러비드』(*Beloved*)에서 모리슨은 스위트 홈과 같은 남부의 노예 농장의 학교선생님의 명백한 잔인함을 드러낸다. 반면, 『자비』에서는 그녀는 외관상 친절한 북부인, 즉 그들 스스로를 노예제로부터 거리를 두는 예외주의자들의 공모에 초점을 둔다. 또한 『자비』는 미국 식민지와 유럽이라는 그들의 근원지 사이를 체계적으로 연결했다. 예를 들어, 플로렌스의 엄마는 아프리카에서 잡혀서 유럽인들에게 팔리고 바베이도스(Barbados)섬으로 이송된 다음 포르투갈인인 도르테가에게 팔려 메릴랜드(Maryland)에 있는 그의 담배농장으로 왔다. 아버지가 무역을 하는 한 배의 선장인 소로우는 노예가 낳은 혼혈 딸인 것처럼 보인다. 제이콥과 레베카는 둘 다 영국에서 자라 식민지로 온 이주민이다. 윌라드와 스컬리는 둘 다 영국인으로, 계약하인으로서 일한다. 『자비』에 등장하는 초기의 농장 경제는 이주민들에게 친숙한 구세계의 시스템을 재생산한 것이다. 구세계에 뿌리를 둔 인물과 그들의 경제적인 관행을 제공함으로써, 모리슨은 자본주의와 이윤, 노예와 주인, 권력과 통치를 위한 구세계의 경제 속에 신세계를 설치한다.

모리슨은 텍스트를 통해 역사적인 사건들을 발굴해 내고 이 역사 속에서 등장 인물들과 그들의 이야기에 대한 공간을 제공한다. 『자비』에서 언급된 역사적 내러티브는 선택된 소수의 예외주의 신화가 타자에 대한 잔인한 착취의 결과를 가져온 아이러니한 정황을 보여준다. 모리슨은 1676년의 베이컨의 반란(Bacon's rebellion)에 대한 언급을 한다. 텍스트는 반란이 일어난 지 육년 뒤인 1682년에 “여전히 혼란상태”(11)인 버지니아에서 시작된다. 1676년에 귀족인 나다니엘 베이컨(Nathaniel Bacon)이 노예들과 계약하인들을 소집하여 땅의 권리, 세금, 그리고 미국 원주민의 운명에 대해 버지니아 주지사에 대항하여 그와 함께 싸웠다.

그 반란은 모든 계층과 인종의 사람들을 결속시켰다. 그러나 반란의 여파 속에, 백인 유럽하인들이 흑인 노예와 원주민과 함께 공공의 대의를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백인하인들에게 특권을 주기위해서 새로운 법들이 통과되었다. “유럽하인 계층의 지위는 높아졌고 인종적 우월감이 주입되었다. 그러는 동안 백인이 아닌 사람들을 강등시키는 과정이 가속화되었다”(Jordan and Walsh 212). 텍스트는 새로운 법이 백인들에게 “어떤 이유로든 어떤 흑인이라도 죽일 수 있는” 면허를 주고 “모든 백인들을 모든 다른 이들로부터 영원히 분리하고 보호했다”(10)고 묘사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인종은 17세기 말에 인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주된 원칙이 된다”(Cantiello 170). 베이컨의 반란 이후 백인과 다른 이들 간의 점진적인 거리는 마크가 죽은 뒤 농장의 백인이 아닌 다른 여자들에 대해 레베카가 무자비하게 대하면서 나타난다.

또한 모리슨은 천연두에 걸린 레베카를 위해 대장장이를 찾아가는 플로렌스의 여정 속에 1692년의 살렘(Salem) 마녀재판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불러낸다 (Strehle 116). 플로렌스는 이전에 소로우를 치유한 적이 있는 대장장이를 찾아가는 도중에 청교도 마을로 들어가서 과부 일링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네 명의 어른과 여덟 살 정도의 어린 소녀가 다음날 일링의 집에 도착했고 그들은 과부의 딸인 제인의 눈이 사시인 것은 그녀가 마술을 부리는 마녀이기 때문이라고 비난한다. 그들 중 어린 소녀가 플로렌스를 보고 “비명을 지르는데”(111) 어린 소녀의 발작을 어른들은 플로렌스가 악의 추종자임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해석한다. 그 사람들은 곧 그녀의 피부가 어둡기 때문에 악마라고 결론짓는다. 그들은 그녀에게 옷을 벗으라고 명령하고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채 떨어져서”(113) 그녀의 몸을 살피본다.

... 그들은 나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해요. 나에게 손을 대지 않고서 그들은 나에게 무엇을 할지 말해요. 그들에게 내 이빨을, 내 혀를 보여주어요. 그들은 내 손바닥의 촛불에 덴 흉터, 당신이 키스로 식혀주었던 그 흉터를 보고 눈살을 찌푸려요. 그들은 내 팔 밑, 다리 사이를 봐요. 그들은 나를 둘러싸고 허리 숙여 나의 발을 살피봐요. 벌거벗은 채 그들의 조사를 받으면서 나는 그들의 눈 속에 무엇이 있는지 살피봐요. 증오도 두려움도 혐오도 없지만 그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떨어져서 내 몸을 보고 있어요.

. . . they tell me to take off my clothes. Without touching they tell me what to do. To show them my teeth, my tongue. They frown at the candle burn on my plam, the one you kissed to cool. They look under my arms, between my legs. They circle me, lean down to inspect my feet. Naked under their examination I watch for what is in their eyes. No hate is there or scarce or disgust but they are looking at me my body across distances without recognition. (112-13)

이것은 그녀에게 진정한 타자 즉, 비인간적인 물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제인의 눈, 플로렌스의 피부색과 같은 차이를 통해, 고통 받지만 선택을 받은 자와 저주받은 악의 추종자 간의 이분의 분리를 창조한다. 모리슨은 이 부끄러운 미국 역사의 순간을 불러내기를 선택한다. 적어도 스물다섯 명의 죽음을 초래한 살렘 마녀재판 사건은 미국 예외주의의 논리에 대한 매우 파괴적이고 생생한 예시이다(Strehle 116). 모리슨은 이 에피소드를 통해 어둡고 다르며 사탄으로 확인된 적에 대한 결과론적인 유죄판결을 폭로한다.

텍스트 속에서 리나의 부족이 겪은 일은 감염된 담요 선물을 통하여 미국 인디언에게 천연두가 퍼진 사건을 회상시킨다. 리나의 부족은 천연두에 의해 사라졌다. 리나는 “담요를 쥐어뜯으며”(46) 죽어간 부족 사람들을 회상한다. 오염된 담요를 주었는지 모르는 이 에피소드는 피츠버그(Pittsburgh) 근처 포트 핏(Fort Pitt)에서 1763년 6월에 일어났다(Strehle 116). 영국 장교인 제프리 암허스트(Jeffrey Amherst)는 헨리 부켓(Henry Bouquet)에게 서신을 쓰면서 요새를 포위하고 있는 인디언 부족사이에 천연두를 전파하는 것을 고안하길 제안했다. 부켓이 회답하길, “그들의 손에 들어갈 담요로”(d’Errico) 그들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그 질병이 실제로 담요를 통해서 전파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는 결정적이지 않다. 그러나 영국인들이 인디언의 땅을 가지기 위해 인디언을 근절하려고 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다른 역사적인 사건처럼 원주민 대학살의 언급은 트라우마와 같은 기억을 회복시키는 반면, 미국이 이상적이고 예외적인 나라라는 환상과는 모순된다.

### Ⅲ. 예외주의와 타자들의 공동체

모리슨은 자신의 땅에서 강제로 이주된 미국 인디언 리나에 의해 재현되는 식민주의, 흑인 노예인 엄마와 플로렌스가 나타내는 노예 무역, 상인이자 농장주인 제이콥과 노예 농장주인 도르테가(D'Ortega), 난파되어 발견된 고아 소로우와 윌라드와 스킨리 같은 계약노동자가 상징하는 자본주의, 제이콥의 아내인 레베카가 도망쳐 나온 종교전쟁과 같은 시대적인 정황을 텍스트 속에 투영함으로써,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그리고 나중의 국가주의로 대변되는 예외주의가 신세계를 정복하는 과정을 보여준다(Karavanta 731).

『자비』는 원래 예외적인 정체성을 가진다는 미국인들의 주장의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제이콥 바크는 육체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가지고 최근 신세계에 도착하여, 그가 노예 소유주가 됨으로써 자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당화한다. 바크는 자연에 대한 사랑, 자립하는 독립심, 그리고 고아와 부랑자에 대한 다정함을 가졌는데 이것은 미국의 이상적인 자아상의 특징이다. 그는 신세계의 아름다움에 주목하고 여행도중 “나무 틈에 끼어 뒷다리에 피를 흘리는 어린 너구리를”(11) 풀어 주는 관대함을 보인다. “음식을 훔치고 심부름을 해서 팀을 구걸하던”(32) “비참한 고아”(12)였던 바크는 예기치 않게 신세계의 황야에 땅을 물려 받은 땅주인이 되어 “아무것도 없던 벌거숭이 삶에서 온전한 삶”(12)을 살게 된다. 그의 땅은 유산으로 나온 것이지만 그는 그의 원칙을 희생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재산을 축적할 수 있다고 믿는다. 바크는 유럽의 부패한 관행 속으로 빠지지 않고 새로운 땅에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려하는 의지를 가지는데 이것은 미국 개척자의 훌륭한 특질을 반영한다. 거만한 노예 농장주 도르테가를 만났을 때 그는 “그의 양심을 팔지 않고도 그 자신의 일이 부를 축적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로”(28) 결심한다.

그러나 예외적인 지위를 추구할 때 바크는 그의 양심을 판다. 텍스트가 진행됨에 따라 황금의 유혹은 바크의 행동을 지배하고 대저택을 짓고자하는 욕망의 형태로 그를 타락시킨다(Gustafson & Hunter 245). 노예를 가진 도르테가보다 자신이 우월하며 선한 의지를 가졌다고 확신하는 바크는 그 자신의 원칙에 그가 예외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농장을 도울 사람이 필요해서 “상품과 교환

하여 살 수 있고,” “모든 가사에 능하며 튼튼한 여성”(52)인 리나를 구매한다. 그가 받을 채무 대신 소로우와 플로렌스를 받아들인다. 그는 소로우와 플로렌스에게 자선을 베풀었다고 생각하지만 모두 재정적인 기반에서 이루어진 거래이다. 소로우는 목재 구매 비용 대신 바크가 나무꾼으로부터 넘겨받은 고아이다. 플로렌스는 도르테가가 진 빛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그녀를 데려가라는 노예 엄마의 간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가 비록 노예소유주가 되지만 그는 그 스스로 “육체는 그의 상품이 아니다”(22)라고 생각한다. 그가 어떤 인종차별주의도 마음에 품고 있지 않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크는 자유로운 흑인 숙련공을 채용하고 그 대장장이가 자신의 동생인 것처럼 대했다. 그는 플로렌스나 소로우 같은 허약한 여성들에 대한 자신의 자비에 대해 자축하지만 그는 결코 그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도르테가의 대저택을 본 후 바크는 비슷한 집을 지으리라 결정하고 그가 “타락한 거래”(31)라고 부르는 노예를 기반으로 한 설탕무역에 투자함으로써 자금을 마련한다. 어둠속에서 그는 “가까이 있는 주블리오(Jublio) 노예들의 육체와 멀리 바베이도스에 있는 노동력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35)라고 생각한다. 그의 양심을 달래주는 이런 헛된 논리에 빠져 바베이도스 섬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정당화한다(Jennings 649). 그의 관대하고 인간적인 본성에도 불구하고 결국 도르테가와와의 만남은 그를 탐욕의 집으로 유혹한다. 그의 우수한 도덕관념과 선한 의지는 더 이상 그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주지 못한다, 바크는 영리를 목적으로 노예의 노동을 이용하는 거래 속으로, 즉, 도르테가의 가치 속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이동한다. 바크는 예외적인 자신의 지위를 갖기 위해 노예의 노동으로 그것을 구입한다. 하지만 바크는 천연두에 걸려 미완성의 대저택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 대저택은 미국이라는 조국의 근본적인 결점에 대한 기념비이자 동시에 이 공동체의 실패를 반영한다(Strehle 115).

레베카 역시 남편처럼 구세계에 대한 연대감 없이 신세계로 온다. 그녀는 그녀의 새로운 사회가 “처형이 왕의 퍼레이드만큼 축제인 곳”(75)인 자신의 고국 영국보다 덜 폭력적일 것이라 희망하면서 미국에 도착한다. 레베카의 계층적인 영국사회에서 그녀의 미래는 “하인, 매춘부, 아내”(77-78)였다. 미국이 무엇을 제공하든 계층이 없는 사회에서 아내로서의 그녀의 위치는 그녀의 최선의 대안

이다. 그녀는 계층, 종교, 그리고 성적인 압제로부터 벗어난 그녀의 자유를 자축한다. 일곱 명의 “추방되고, 버려진 여성들”(82)인 매춘부, 소매치기와 함께 배에 오른 그녀는 그들과 따뜻한 동료애를 나눈다. 타자에 대한 민주적이고 평등주의적인 견해를 가진, 근면하며 쾌활하고 독립적인 그녀 역시, 미국의 긍정적인 가치를 정형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녀의 남편처럼 레베카는 런던에 대한 향수가 없다. 바크는 말 그대로 고아이지만 그녀는 그녀의 뱃살을 지불하고 그녀를 거둬줄 첫 번째 남자에게 자신을 판 부모님에 의해 신세계에서 고아가 된다. 이러한 레베카의 가족배경으로 인해 그녀는 리나와 일종의 유대감을 가지고 우정을 쌓게 된다. 레베카가 영국에서 도착하자마자 리나와 그녀는 곧 친구가 되었는데 이것은 서로가 함께 살고 함께 공유하는 것을 배워야만 생존할 수 있음을 그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레베카는 리나와 함께 고아에게 공간을 허락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소로우와 플로렌스를 받아들인다. 레베카는 그녀의 남편에게 어울리는 자립적인 독립심을 가지고, 농장에 대해 스스로 배우며 “그녀의 부모님보다도 더 신의 특혜에 대한 편협한 정의”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 자신 이외에는 아무도 구원되지 않는다”(92)고 믿는 인근의 침례교도들과 자신을 분리하여 살아간다.

그러나 그녀의 남편이 죽었을 때 레베카는 예외주의 내러티브에 의해 약속받은 선민의 안전함을 갖고자 자신의 가치관과 우정을 배반한다. 구원에 대한 그녀의 유일한 의지는 백인 공동체의 사회구조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신세계에서도 여성들의 미래는 그들의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남자의 처분에 달려있다. 바크가 없는 그녀는 점차적으로 수용과 지지를 받기위해 그녀가 거부한 기독교 공동체로 돌아간다. 그녀는 천연두에 걸려 있을 때, 리나를 “그녀가 가진 단 한명의 친구”(73)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전에 자신이 경멸한 재세례파 교구로부터 승인을 얻기 위해 그녀는 이제 리나를 노예로 취급한다. 두 여성이 농장 일을 함께 하던 동반자였지만, 지금은 리나가 “혼자 경작해야한다”(160). 레베카의 이러한 변화는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녀는 가부장적인 압제하의 여성의 곤경에 대해 이해하는 페미니스트적인 시각을 가졌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의 공동체를 형성한 모든 여성들을 배신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녀가 걱정해오던 소로우를 무료로 넘겨주기를 제안하고, “많은 애정을 가

졌던”(96) 플로렌스를 팔기로 계획한다. 레베카는 양심을 팔았고 재세례파에 합류하기 위해 자신의 친구를 팔 준비를 한다. 그녀의 남편처럼 레베카는 그녀 자신을 위한 예외를 만들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녀가 가졌던 원칙을 희생하고 그녀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희생시킨다. 스컬리는 죽음과 배신이 바크 농장의 가족 같았던 무리를 갈라놓는 것을 보고 그는 “한때 그들이 함께 소외되어 우애를 쌓았기 때문에 일종의 가족”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이루었다고 상상한 그 가족은 거짓”이라고 결론짓는다(155-56). 월라드는 안주인인 레베카가 농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하고 기독교 공동체는 그녀에게 파트너를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바크와 레베카는 그들 자신과 그들의 “고아”(59)들을 그 지역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기관들로부터 단절시키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주변 공동체들이 몰두해 있는 예외주의 이데올로기의 폭력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데 실패한다.

리나는 유럽인들이 그녀를 “공포에 떨게 하고”(44) “구출하고”(44) 다시 버렸을 때 신세계의 예외주의 내러티브 속에 물건과 같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이해한다. 리나는 천연두에서 살아남은 세 명의 생존자 중에 한명이다. 유럽인들은 그녀와 두 명의 소년을 구출했고 그녀를 “친절한 장로교파들 사이에서 살도록”(47) 데려갔다. 리나는 개종을 함으로써 기독교 공동체의 보호를 받으려 한다. 하지만 기독교 공동체는 연인에게 리나가 폭행을 당했을 때 그녀를 도우길 거절한다. 리나는 유기의 공포를 없애기 위해 유럽인들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그녀를 가르친 후에 그녀를 버렸고 “개처럼, 현관 앞에 그녀를 위해 그릇을 하나 남겼다”(105). 후에 그들은 그들의 공동체에서 리나를 추방하기 위해 그녀를 판매한다. 리나는 기독교 사회가 그녀를 실망시킬 때 자신의 원주민 문화로 돌아가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 조상을 소환한다(Schreiber 171). 리나는 부족의 고대 방식과 원주민 약, 그리고 민간전승으로 돌아가 사물의 숨은 의미를 회상하거나 발명한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존재하는 방식”(48)을 찾은 것이다. 그녀의 “자기 발명”(50)은 잃은 것에 대한 슬픔에 의해 파괴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영감을 주는 행위일 뿐 아니라 그녀가 한때 그녀의 인디언공동체에서 살았던 삶을 기억하는 행위이다. “추방, 질병, 가정 내의 학대 그리고 종교적인 집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인 리나는 미국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Baillie 189)”를 보

여주는 인물이다.

이러한 새로운 상태에서 리나는 바크의 땅을 경작하고 “식물과 동물과 공존하며 존재한다”(Baillie 190). 작품 속에서 자연의 세계에 대한 그녀의 친화성은 매우 돋보인다. 리나는 “새와 함께 울고 식물과 이야기하고 다람쥐에게 말하고 소에게 노래하며 비를 향해 입을 열었다”(49). 리나는 후에 바크가 불필요한 세 번째 집을 짓기 위해 그렇게 많은 나무를 “나무의 허락도 받지 않고 죽이는”(44) 일은 불행을 불러오는 일이라 생각한다. 자연을 돌보고 자연과의 유대를 이루고자 하는 이와 같은 리나의 마음은 레베카와 플로렌스를 돌보는 행위로 연결된다. 리나는 엄마처럼 어린 플로렌스를 돌보기로 한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배운 교훈들을 가지고 플로렌스를 안내해 준다. 리나는 플로렌스에게 자기 자신에게 의존할 필요가 있음을 가르치려고한다.

리나가 이러한 돌봄을 실천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바크와 레베카의 존재가 무엇을 나타내는가를 그녀가 잊었다는 것은 아니다. 리나는 결과적으로 이 예기치 않은 공동체를 만든 바크와 레베카의 주인으로서 역할에 대해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녀는 그녀의 주인과 안주인이 상징하는 유럽인들이 “도망가지도 죽지도 않을 것임”(54)을 알고 있다. 리나는 “그들이 영원히 땅에 울타리를 칠 것이며 나무들을 먼 나라로 실어갈 것이고 어떤 여자도 짧은 쾌락을 위해 데려갈 것이고 땅을 파괴할 것이며 신성한 장소를 더럽히며 지루하고 상상력이 없는 신을 숭배할 것임”(54)을 안다. 리나는 자비와 돌봄의 행위를 실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바크, 레베카와 더불어 사는 것의 가능성을 보았지만 그들이 만든 공동체가 불확실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고아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루고 있는 동맹에는 주인과 노예라는 관계가 그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Karavanta 734).

리나는 바크의 죽음으로 야기된 위험한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는 인물이다. 바크가 죽고 나서 바크농장은 영국평민인 레베카, 흑인 플로렌스, 미국인디언인 리나 그리고 임신한 혼혈인 소로우로 구성된 여자들뿐인 공동체가 된다. 만약 천연두에 걸린 레베카가 죽으면 인근의 백인 공동체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세 명의 주인 없는 여자”(58)인 플로렌스, 소로우 그리고 그녀 자신을 팔 것이다. 그들은 “여자이고 불법이기” 때문에(58), 바크의 땅을 물려받을 수도 없고

무단 거주자로 그곳에 살 수도 없다. 바크와 레베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이상적인 공동체는 사실 모든 것이 레베카의 생존에 달려있는 불안정하고 허약한 공동체이다.

플로렌스의 이야기와 함께, 모리슨은 예외주의 국가에서 자유의 약속에 대한 어두운 예외로 작용하는 “아프리카 존재”의 딜레마를 탐구한다(*Playing in the Dark* 48). 텍스트는 플로렌스를 통해 선민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내에서 불화를 유발하는 인종차별주의의 영향력을 드러낸다. 플로렌스는 속죄하는 신앙심의 가식 아래 인종차별주의를 경험하게 된다. 플로렌스의 경험은 “그 시절에 노예소녀가 된다는 것은 어떠했을까?”(Norris)에 대한 모리슨의 답을 보여준다. 플로렌스에게 그것은 추방자로서의 한 사람의 위치를 발견하는 것을 수반한다.

텍스트는 청소년기의 플로렌스가 자신의 상황과 세계에 대한 점진적인 이해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플로렌스는 자신의 “포르투갈 숙녀의 발”(4)을 위한 신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녀의 부드러운 발은 다 닳아빠진 신발이라도 신어서 보호를 받아야 할 정도로 연약하다. 플로렌스는 도르테가의 빛에 대한 대가로 그녀의 엄마만을 데려가려던 바크의 선택을 알지 못하고 그가 “남자 아기가 아니라”(7) 자신과 엄마를 요청했다고 잘못 기억한다. 이러한 기억 속에 그녀는 자신이 바크의 선택받은 한명이라고 믿는다. 플로렌스의 엄마가 여전히 돌보아야 할 아들을 선택하고 플로렌스를 바크에게 넘김으로써 플로렌스는 유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다. “탐욕스러운”(8) 아기를 지키고 플로렌스를 보내고자 한 엄마의 선택은 그녀를 희생될 수 있는 타자로 만든다. 엄마로부터 분리된 그녀는 버림받은 자이며 강요된 이주자이다. 어머니의 상실은 노예에게 영원한 이방인과 방랑자의 상태를 부여한다(Hartman, *Lose Your Mother* 5). 엄마의 사랑으로부터 추방된 후 플로렌스는 바크의 농장이라는 비교적 안전한 환경에 도착하고 농장 사람들은 플로렌스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녀는 그녀가 만나는 모든 이들로부터 지지를 받고자 한다. 그녀는 “모든 작은 애정에 감사하며, 머리를 토닥이는 것, 동의해주는 미소에 감사해한다”(61). 모든 만남에서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검증한다. 플로렌스는 자신이 선택받을 만하다고 믿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가치에 대해 확신한다.

리나는 “그녀와 바로 사랑에 빠졌다”(60). 왜냐하면 그녀는 리나가 가진 집에 대한 “갈망”(60)을 완화시켜주었기 때문이다. 리나는 집안일에 대한 플로렌스의 능력을 인정하며 소로우보다는 플로렌스를 일을 같이하고 잠을 같이 자는 친구로 선택한다. 레베카 역시 플로렌스에 대해 “그녀가 영리하다”고 생각하며 “그녀에 대한 많은 애정”과 신뢰를 갖게 된다(96). 대장장이가 도착했을 때 그는 다른 여성이 아닌 그녀를 선택함으로써 플로렌스의 매혹적인 욕망에 응한다. 리나는 “항상 쉬운 수확물”(45)인 소로우가 그의 관심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는 플로렌스와 결합한다. 플로렌스는 대장장이가 그녀를 만든 사람이며 또한 그녀의 세상이며 자신이 선택받았다고 느낀다(71). 대장장이에게 사랑받고 싶은 그녀의 욕구는 천연두에 걸린 레베카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대장장이를 찾아 여행을 하는 주요 동기가 된다. 하지만 후에 그녀는 자신의 연인에 의해 추방당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플로렌스는 다양한 인종의 여성들이 함께 일하던 농장을 떠나, 황야에서 선택 받은 자들의 명백한 인종차별주의를 도처에서 마주한다. 베이컨의 반란 뒤에 등장하는 이분의 논리는 “모든 다른 이들을 백인들로부터 영원히 분리하고 보호했다”(10). 플로렌스는 한 청교도 공동체가 그녀의 몸을 검사할 때 예외주의에 근거한 인종차별주의와 마주한다. 과부 일링의 벽장 속에서 플로렌스는 옷이 벗겨지고 비인간화되고 대상화된다. 이 인종차별적인 시각적 강간은 그녀의 몸을 더럽힌다. 청교도들이 그녀를 탐색할 때 플로렌스는 자신이 그들에 의해 타자로서 지정되었음을 깨닫는다. 즉, 청교도들은 비인간적인 물체로서 그녀의 위치를 확인시켜준다. 이 일은 후에 플로렌스가 말라익(Malaik)과 대장장이를 공격하는 폭력을 생산한다. 그녀는 이후에 자신이 “시들어가는 것이 과부의 벽장 속에서 시작되었다”(160)고 인식한다. 그녀는 그녀가 “쫓겨진 물건”(115), 즉, 인간이 아닌 버려진 물건이라는 청교도의 가정을 엄마가 자신보다 남동생을 선택한 사실, 그리고 나중에 대장장이가 그가 돌보고 있는 고아 말라익을 선택한 것과 연결한다. 두 경우에서 다른 이가 선택되고 그녀는 버려졌다.

어린 말라익을 플로렌스가 이해할 때 그녀는 가치 없는 사람들과 선택받은 이들을 분리하고 모든 관계를 경쟁적으로 만드는 이분의 논리를 적용한다. 플로렌스는 “들을 수 없는”, “중요한 무엇인가를”(8) 자신에게 전하고자하는 엄마의 눈

속에 들어있는 그 메시지를 항상 이해하지 못한다. 소중한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이 플로렌스가 이해하는 핵심이다. 이제 플로렌스는 청교도가 자신을 물건으로 강등시킨 여파로 그녀의 엄마가 그녀 속의 어두움을 감지하여서 남동생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플로렌스는 악에 대한 청교도 공동체의 생각을 그녀에게 내재화하여 그것이 그녀 안에 있음에 틀림없고 이 악이 엄마가 자신을 유기한 이유라 느낀다. 태양이 지나간 뒤에 남기는 “어둠”(115)이 바로 자신이라고 인정한 플로렌스는 말라익이 대장장이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간주한다. 플로렌스는 대장장이의 오두막 옆에서 “말라익의 손을 잡고 서 있는”(138) 그녀의 엄마에 대한 환상 속에서 두 소년을 융합한다. 그녀가 말라익의 팔을 탈구될 정도로 세게 당겨 그를 기절하게 함으로써 그녀는 청교도들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어둠을 실행한다. 말라익에 대한 그녀의 행동은 자신을 비인간화한 인종차별주의와 동일한 이분의 가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대장장이도 미국 식민지의 예외주의 문화에 스며든 이분의 논리의 지배적인 영향력아래에 놓이게 된다. 부상당한 말라익을 발견한 이 자유로운 흑인 숙련공은 그녀를 선민으로부터 뿐 아니라 그 자신으로부터 차별화하여 “너는 노예”이며 “너의 머리는 텅 비고 너의 몸은 거칠어”(141)라고 비난하고 그녀의 죄를 추측하여 그녀를 때린다. 플로렌스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알았지만 그녀가 죄인이라고 그가 즉시 판단하고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한 확신 없이”(140) 그녀를 내치는 대장장이에 의해 충격을 받는다. 대장장은 그녀의 악함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억압당한 인간의 악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보다는 존재론적으로 사악한 사람으로 그녀를 규정한다. 자유로운 흑인인 대장장은 노예인 흑인 여성인 플로렌스를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아무도 아닌”(141) 존재로 정의한다. 플로렌스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를 통해 인종차별주의라는 부상하는 이데올로기가 드러난다. 플로렌스의 고통에 대한 어떤 자비도 없는 대장장이의 잔인함을 통해, 플로렌스는 자유로워지는 것이 노예를 인간이하의 존재로 제시하는 “진실한 주장”의 “제한”내에서 자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Hartman, *Scene* 234). 플로렌스의 열정을 일깨우고 만족시킨 이 남자는 그녀의 마음을 일축하고 그녀의 마음에 대한 진정한 접촉을 하지 못한다. 그는 노예제 속의 탄생과 생존이라는 그녀의 역사를 모른다. 노예주의 문화는 어떤 사랑도 너무 지나친 것으

로, 어떤 욕망도 거친 것으로 어떤 노예도 네발 달린 생각 없는 육체를 가진 존재로 정의한다(Strehle 119). 대장장이 같은 흑인 남성이 흑인 여성을 비난하는 단순한 이중성을 보일 때 그는 예외주의 문화의 논리를 재생산한다. 플로렌스와 대장장이는 그들을 타자로 규정하는 인종차별주의 문화의 논리 속에서,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한다. 플로렌스는 자신을 추방시킨 대장장이를 향해 그의 해머를 들고 공격한다. 플로렌스는 예외주의의 대가를 지불하고 “건드릴 수 없는”(152) 존재가 된다.

이제 플로렌스는 그녀의 순진무구한,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기 위한 열성”(152)을 포기한다. 플로렌스는 바크의 쇠락한 대 저택의 벽과 바닥에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변화를 쓴다. 그리고 그녀는 세상에 대한 더 날카로운 비판적 인식을 가지게 된다. 그녀는 재세례교 교회와 레베카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한다. 그녀는 레베카의 억압적인 새로운 규칙이 독실해 보이고자하는 욕망으로부터 나온 “그녀 자신의 것”(159)임을 인지한다. 그녀는 대장장이를 공격한 것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또한 “자신의 갈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자”(160)를 언급하며 그의 거만함에 대해 비난한다. 더불어, 그녀는 그녀가 청교도 공동체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제인이 자신에게 보여준 “모든 것의 위협을 무릅쓰는”(160) 자비를 말한다. 미국의 예외주의는 선민은 다른 이들로부터 쉽사리 분리될 수 있다는 신념에 의지하지만, 플로렌스는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과정 속에서 단순한 이분의 차이를 무효화하는 그녀의 날카로운 인식을 보여준다. 그녀의 결론은 반항을 일으키는 역설, 선민의 분리를 본질적으로 반박하는 양면성으로 가득 차다.

나는 황무지가 되었지만 나는 또한 플로렌스예요. 온전하게. 용서받지 못하고서, 용서하지 못한 채. 무정하게, 내 사랑. 아무도 아닌. 내 목소리 들리나요? 노예. 자유. 나는 견뎌요. 나는 슬픈 한 가지를 간직할 거예요. 아무리 해도 엄마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 엄마도 내가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지 못해요. 엄마, 엄마는 이제 기뻐할 수 있겠죠. 내 발바닥이 사이프러스 나무처럼 단단하니까.

I am become wilderness but I am also Florens. In full. Unforgiven.

Unforgiving. No ruth, my love. None. Hear me? Slave. Free. I last. I will keep one sadness. That all this time I cannot know what my mother is telling me. Nor can she know what I am wanting to tell her. Mae, you can have pleasure now because the soles of my feet are hard as cypress. (161)

그녀의 황야는 사랑하는 이의 용서와 이해가 없을지라도 격렬히 자신을 방어하고 소중한 자아를 주장한다. 그녀는 흑인을 인간이하의 상품으로 정의하는 문화 속에서 살 수 없는 “포르투갈 숙녀의 발”(4) 대신 이제는 “사이프러스 나무처럼 단단한”(161) 그녀 자신의 발로 설 수 있는 여성으로 변한다. 그녀의 연약한 발과 단단한 발바닥사이의 대조는 그녀 자신의 내적 원천에 의존하여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그녀의 능력의 전조가 되는 것이다(Schreiber 170). 노예이면서 자유로운 그녀는 자신의 여행에서 발견한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것이며 미국 예외주의의 문화 속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을 것이다.

#### IV. 예외주의와 내러티브 구조

『자비』는 국가이전의 초기 식민지시대에 “풍부한 황야로부터 폭력적으로 나라를 만든 이들”(Slotkin 6)에 의해 유포된 지배 정책의 변방에서 형성된 타자들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 『자비』는 미국이라는 국가의 신화창조 과정에서 잊힌 타자들의 공동체, 그들의 유기에 관한 역사이다. 모리슨은 『자비』에서 미국사회를 형성하는 예외적 운명의 신화에서 어떻게 백인과 유색인, 그리고 선민과 타자들이라는 이분의 분리가 등장하는가에 주의 깊게 몰두한다. 이 예외주의는 항상 타자와 적을 밝혀서 지속적으로 배타적인 정체성을 제시한다. 모리슨은 『자비』를 통해 자신의 명백한 운명을 수행하는 예외주의 신화 속 개척인의 고통과 투쟁을 국가 건설의 문화적 형상으로 제시한 미국의 전통을 비판한다. 또한 모리슨은 텍스트 속 이방인들의 공동체의 분열과 소멸이 예외주의 이데올로기의 점진적인 힘에 의해 어떻게 유발되는가를 묘사하고 있다. 모리슨은 어떻게 “미국이 그 스스로를 동질의 공동체로서 상상하기 위해 이질적인 기원과 그

폭력의 행위를 있어야만 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미국 기원의 신화를 해체한다 (Hehdad 30).

이와 더불어, 모리슨은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비판을 분리를 전경화 하는 내러티브 구조와 결합시킨다. 모리슨은 가까이 사는 인물들 간의 변별적인 대립과 거리를 창조한다. 텍스트의 시각과 구조는 효과적으로 각각의 목격자를 소외시키고 서로에 대한 그들의 이해 부족을 강조함으로써 연결과 의사소통의 부재라는 주제를 형식적인 면에서 복사한다. 『자비』에서 인물들 간의 차이와 분리를 강조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제한된 삼인칭시각을 사용한다. 그녀는 이전 소설에서도 다른 시각을 대조하기 위해 제한된 삼인칭 복수의 시점을 사용했다. 『러브』(Love)에서는 모리슨은 일인칭과 삼인칭을 결합했고 여기서 엘(L)의 일인칭 시각이 이탤릭체로 나타난다. 한 인물과 그 다음 인물간의 이동은 장(chapter)안에서, 그리고 장면 내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자비』에서는 숫자가 매겨지기도 이름이 붙여지지도 않은 열두 장에서, 각기 다른 시점이 분리된 각각의 장에서 나타난다. 『자비』에서 플로렌스의 내러티브가 주도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러브』에서처럼 각 장에 붙여진 제목과 같은 외적인 발판 없이 각각의 인물들은 각자 자신들의 이야기에 몰두한다. 내러티브는 플로렌스의 일인칭 시점과 제이콥, 리나, 레베카, 소로우, 그리고 윌라드와 스컬리에게 딸린 3인칭 시점사이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플로렌스 엄마의 일인칭 사이에서 이동한다. 각기 다른 시점의 내러티브는 각기 다른 장에서 나타남으로써 전지적 설명을 최소화하며, 동시에 서로를 보완하고 인물과 사건에 대한 다중의 판단을 드러낸다. 이러한 내러티브 형태는 극적으로 인물간의 분리를 강조하고 그들 공동체의 붕괴를 예견하게 한다.

각각의 등장인물이 제한된 삼인칭 시점으로 과거시제를 이용하여 차이나는 관심을 드러내는 것에 반해 플로렌스는 일인칭 현재시제를 사용하여 자신의 이야기, 그녀의 공동체의 역사를 전한다. 플로렌스는 “항상 어디에나 발생하는”, “이상한 일”(3), 침묵되고 억압되어 온 일을 일인칭 현재시제로 기록함으로써 현재 속에 과거를 드러낸다. 플로렌스는 또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언어, “열정적인 정신에 대한 어떤 기록된 사투리와 다른 압축된, 비문법적인 어법”(Updike)을 사용한다. 모리슨은 플로렌스의 문체에 대해 “그것은 내러티브에 직접성을 주었고 그것은 나로 하여금 그녀가 생각하는 바를 드러내고 그녀에게 일종의 순진무구

함을 주었고 동시에 세련됨을 주었다”(Smallwood 37)라고 밝혔다. 이러한 독특함이 이 언어를 플로렌스만의 것으로 만든다. 그것은 또한 다른 인물들과 그녀의 거리를 강조함과 동시에 그녀를 카플란이 “유령 이방인”이라고 말한 존재, 즉 미국에 잠복하고 있는 이질적인 존재 안에 그녀를 두는 것이다. 플로렌스는 각각의 인물의 내러티브 사이에서 자주 출몰하는 유령 역사가로 등장하여 기원의 엄숙함을 비웃고 역사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존재가 역사 속에 항상 살아왔음을 보여준다(Karavanta 727). 플로렌스는 그녀의 말하기에 독자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전체주의적 역사”(Hartman, *Scenes* 11)라는 장소에서 빠져나오기를 초대한다.

주제적 분리의 암시를 강화하고 심화시키기 위해 모리슨이 구조적 분리를 사용한 가장 생생한 예는 텍스트의 마지막에 플로렌스 엄마의 시각을 배치한 것이다. 플로렌스는 내러티브의 도입부에서 엄마의 상실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엄마가 남동생을 더 선호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녀의 엄마는, 플로렌스가 결코 받을 수 없는 소통방식으로, 마지막 장에서 플로렌스에게 플로렌스를 구하기 위해 플로렌스를 버린 그 결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플로렌스의 엄마는 플로렌스를 노동과 생산을 위한 소유물이나 노예로 보기보다는 “인간의 아이”(166)로 플로렌스를 바라보는 바크의 인간애를 읽고 자신의 딸을 데려가라고 애원한다. 노예엄마는 그것이 메릴랜드농장의 전통적인 노예제도하에서의 삶보다 그녀의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이 마지막 장은 엄마와 딸 간의 소통의 부재를 보여준다. 반대쪽에 그들을 배치함으로써 텍스트에서 떨어져 위치하고, 바크의 농장에서 플로렌스와 만난 사람들의 내러티브와도 분리되어, 분리된 엄마와 딸의 시각은 그 차이를 좁힐 수 없다. 플로렌스와 더불어 그녀의 엄마는 일인칭으로 말하는 유일한 인물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엄마는 자신의 이야기, 즉, 그녀의 모든 전통과 과거를 강탈당하고 “인간이 아닌”(165) “검둥이”(165)로 신세계에 폭력적으로 던져져서 검은 대서양과 아프리카 이산의 역사, 그리고 딸과의 분리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하고 있다.

텍스트의 형태는 바크 농장에 가족처럼 함께 살게 된 인물들 간의 반어적인 거리를 펼쳐 보이고 그래서 그 집단을 함께 붙잡고 있는 유대의 허약함을 강조한다(Strehle 121). 텍스트 속 인물들은 근본적으로 의사소통에 실패한다. 예를 들

어, 아무도 소로우의 또 다른 자아인 “쌍둥이(Twin)”(118)에 대해 모른다. 소로우는 리나가 자신의 첫 번째 미숙아를 의사시켰다고 믿는다. 나란히 놓인 다른 시점의 내러티브는 사건들에 대한 다른 인식을 대조해 보인다. 플로렌스는 정신적 외상과도 같은 자신의 엄마로부터의 분리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바크는 플로렌스를 “인수”한 것을 “구출”로 볼 수 있다고 자축한다(34). 리나는 레베카와 자신의 친밀한 우정을 회상한다. 반면, 레베카는 바크 없이는 “하인들 이외는 아무도 없다”(99)고 생각한다. 그들의 유대는 끊어진다. 소로우는 “그들 사이에는 늘 영긴 실”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실이 끊어졌고 각각의 여자는 스스로를 자기 안에 가두었다”고 생각한다(133). 그들은 이제 각자 “자신의 생각만으로 된 거미줄”(134)을 자아낸다. 텍스트의 순차적인 섹션들은 인물들 간의 일시적인 동족 관계의 단절을 나타낸다. 분리되고 침묵하는 목격자로서 각각의 인물의 내러티브는 효과적으로 그들 간의 공동체의 부재를 강조한다.

그들이 만든 공동체는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은, “모두 고아”(59)인 이방인들의 일시적인 공동체이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들의 공동체의 경계 너머로 그 예외주의의 내러티브의 세계가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 공동체의 이질적인 필요가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그 세계에 영향을 주고 그 세계를 변형할 수도 없다. 모리슨 말을 빌리자면, 그들의 “개인성”과 “자급자족”과 “자신보다 더 큰 무엇에 소속될 필요”사이의 “긴장” 때문에 그들의 공동체는 실패한다(Neary). 모리슨은 텍스트를 인물들 간의 공유된 것이 아니라 반목과 소외를 표현하는 일련의 침묵하는 명상으로서 발전시켜 선택받은 사람들과 타자를 가르는 예외주의의 논리가 공동체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표현한다.

## V. 결 론

모리슨의 아홉 번째 소설 『자비』는, 노예제에 따라 자동적으로 인종의 정체성이 결정되기 전 시대인 17세기로 돌아가서 ‘선택된 국민’이라는 미국 예외주의 신화가 선택된 사람과 그이외의 사람들 사이의 유해한 이분의 분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비』에서는 예외주의의 신념 아래 식민지에 정착한 다양한 종

파들이 인정받고 권력을 가지기 위해 경쟁하면서 보여준 폭력성을 고발하고 계속해서 타자가 되는 것, 고아가 되는 것의 주제를 탐구하고 있다. 등장인물들이 미국 예외주의의 속에서 타자로서 생존하고자 고군분투하는 것과 나란히 모리슨은 구조적으로 분리를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내러티브 형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텍스트 구조를 통하여 모리슨은 타자들의 분리에 대한 고찰을 확장한다.

『자비』는 식민지화, 노예거래 그리고 자본주의의 힘에 의해 신세계로 떠밀린 다르고 종종 반대되는 문화적, 종교적 그리고 인종적 태생의 구성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공동체의 역사를 보여준다. 『자비』는 예외주의의 신화가 외면했던, 서로가 필요하며 서로에게 의존하는 고아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이야기이다(Griffin 126). 땅이 없고 소유권을 빼앗긴 이 사람들은 그들의 고향으로부터 분리되어 신세계에서 흩어진다. 그들의 대립적이지만 또한 일치하는 내러티브, 그들의 다르지만 서로 뒤엉킨 역사는(Said 18-19) 이 공동체의 정수를 구성한다. 이러한 공동체의 이야기는 미국예외주의의 내러티브가 빠뜨리거나 인종, 계층, 종교, 성 정체성에 있어 열등한 타자로 묘사한 그들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재현하고 있다(Karavanta 725). 이 공동체는 미국의 국가적 상상의 가장자리에 남아있으며 또 다른 공동체 역사를 드러낸다. 모리슨은 『자비』의 예외주의의 신념 아래에 제시되는 공식적인 미국 역사의 기원에 의해 억압되거나 삭제된 사건들을 텍스트 속에 묘사하여 이 이방인의 공동체에 대한 그녀의 “문학적 고고학”(Tally 81)을 발전시킨다. 모리슨은 추방되고 주변화 된 사람들을 희생하여 이루어진 국가적 공동체의 예외적인 정치학에 의문을 제기한다. 나아가, 모리슨은 추방과 이주로 만들어진 이 공동체의 긍정적인 가능성을 독자가 상상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적 차이라는 장애를 가로지르는 인간인식과 소통에 대한 탐색을 통해, 모리슨은 진정으로 구원적인 신세계에 대한 가능성, 다시 말해, 다른 미국에 대한 희망을 제안한다. 비록 텍스트는 예외주의의 신화와 이분의 선택이라는 논리에 빠진 문화 속에서 공동체의 분리와 붕괴를 말하지만, 이 타자들의 공동체의 역사를 통해 모리슨은 예외주의의 신화가 낳은 분리가 아닌 함께 살아갈 필요를 강조한다.

『자비』 속 이산의 다문화적인 공동체를 이룬 미국의 이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는 미래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역사 속에 사는”(Bogues 4) 주체들의 이야기이다. 텍스트 속의 고아들은 예외주의의 내러티브의 폭력적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

지만 이 타자들은 그들의 다른 역사와 배경에도 불구하고 예외주의 제도에 도전하는 상징적인 개척자이기도 하다. 모리슨은 『자비』를 통해 미국대륙이 한 국가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타자에 대한 예외주의의 배제가 아니라 오히려 대립되는 문화들의 거친 조우에서 탄생한 공동체의 “불규칙적인”(Radhakrishnan 187) 업적을 말하고 있다. 모리슨은 지배적인 국가의 내러티브가 엄격히 확립되지 않았던 시기의 이문화간의 혼란스러운 역사를 보여주어 미국의 예외주의 내러티브가 이종의 요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제외하여 잇는 것을 기반으로 구축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모리슨은 타자들의 역사, 그들의 이야기가 함께 상상되고 서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인 용 문 헌

- Babb, Valerie. “E Pluribus Unum? The American Origins Narrative in Toni Morrison’s *A Mercy*.” *MELUS* 36.2 (2011): 147-64. Print.
- Baillie, Justine Jenny. *Toni Morrison and Literary Tradition: The invention of an Aesthetic*. London: Bloomsbury, 2013. Print.
- Bass, Patrick Henry. “Have Mercy!” *Essence* 39.8 (2008): 87. Print.
- Behdad, Ali. *A Forgetful Nation. On Immigration and Cultural Identity in the United States*. Durham: Duke UP, 2005. Print.
- Bouges, Anthony. “Politics, Nation and PostColony: Caribbean Inflections.” *Small Axe* 11.6 (2002): 1-30. Print.
- Cantiello, Jessica Wells. “From Pre-Racial to Post-Racial?: Reading and Reviewing *A Mercy* in the Age of Obama.” *MELUS* 36.2 (2011): 165-83. Print.
- d’Errico, Peter. “Jeffrey Amherst and Smallpox Blankets.” 2010. Web 13 Nov. 2017.
- Griffin, Farah Jasmine. “Wrestling Till Dawn: On Becoming an Intellectual in the Age of Morrison.” *Toni Morrison, Forty Years in the Clearing*. Ed. Carmen R. Gillespie. Lanham: Bucknell UP, 2012. 116-27. Print.
- Gustafson, Sandra M., and Gordon Hunter. “Projecting Early American Literary Studies.” *American Literary History* 22.2 (2010): 245-49. Print.
- Harris, Ann E. “Women, Work and Bondage in Toni Morrison’s *A Mercy*.” *Forum on Public Policy* 2010. Web. 13 Nov. 2017.
- Hartman, Sadiya V. *Scenes of Subjection. Terror, Slavery, and Self-making in Nineteenth*

- Century America*. Oxford: Oxford UP, 1997. Print.
- \_\_\_\_\_. *Lose Your Mother: A Journey Along the Atlantic Slave Route*. New York: Farrar, 2007. Print.
- Jennings, La Vinia Delois. "A Mercy: Toni Morrison Plots the Formation of Racial Slavery in Seventeenth Century America." *Callaloo* 32.2 (2009): 645-49. Print.
- Jordan, Don, and Michael Walsh. *White Cargo: The Forgotten History of Britain's White Slaves in America*. New York: NYU P, 2007. Print.
- Kaplan, Amy. *The Anarchy of Empire in the Marketing of U. S. Culture*. Cambridge: Harvard UP, 2002. Print.
- Karavanta, Mina. "Toni Morrison's *A Mercy* and the Counterwriting of Negative communities: A Postnational Novel." *Modern Fiction Studies* 58.4 (2012): 723-46. Print.
- Madsen, Deborah L. *American Exceptionalism*. Jackson: UP of Mississippi, 1998. Print.
- Marcus, James. "This side of Paradise." 29 April. 1998. Web. 13 Nov. 2017.
- Montgomery, Maxine L. "Got on My Traveling Shoes: Migration, Exile, and Home in Toni Morrison's *A Mercy*." *Journal of Black Studies* 42.2 (2011): 627-37. Print.
- Morrison, Tony. *Playing in the Dark: Whiteness and the Literary Imagination*. Cambridge: Harvard UP, 1992. Print.
- \_\_\_\_\_. "Home." *The House That Race Built*. Ed. Wahneema Lubiano. New York: Vintage, 1998. 3-12. Print.
- \_\_\_\_\_. *A Mercy*. New York: Vintage, 2008. Print.
- Mueller, Stephanie. *The Presence of the Past in the Novels of Toni Morrison*. Heidelberg: Winter, 2013. Print.
- Neary, Lynn. "Toni Morrison Discusses *A Mercy*." 29 Oct. 2008. Web. 20 Dec. 2017.
- Norris, Michele. "Toni Morrison Finds 'A Mercy' in Servitude." 27 Oct. 2008. Web. 20 Dec. 2017.
- Pease, Donald E. *The New American Exceptionalism*.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2009. Print.
- Radhakrishnan, R. *Theory in an Uneven World*. Oxford: Blackwell, 2003. Print.
- Roynon, Tessa. *The Cambridge Introduction to Toni Morrison*. New York: Cambridge UP, 2013. Print.
- Said, Edward W.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Vintage, 1994. Print.
- Smallwood, Christine. "Back Talk: Toni Morrison." *The Nation* 8 Dec. 2008: 37. Print.
- Schreiber, Evelyn J. "Echos of 'The Foreigner's Home' in *A Mercy*." *Race, Trauma, and Home in the Novels of Toni Morrison*. Baton Rouge: Louisiana State UP, 2010. 157-76. Print.
- Spanos, William V. *American Exceptionalism in the Age of Globalization: The Specter of Vietnam*. Albany: SUNY P, 2008. Print.

- Strehle, Susan. "‘I Am a Thing Apart’: Toni Morrison, *A Mercy*, and American Exceptionalism." *Critique* 54.2 (2013): 109-123. Print.
- Tally, Justine. "The Morrison Trilogy." *The Cambridge Companion to Toni Morrison*. Ed. Justine Tally. Cambridge: Cambridge UP, 2007. 75-92. Print.
- Updike, John. "Dreamy Wilderness: Unmastered Women in Colonial Virginia." *The New Yorker* 3 Nov. 2008. Web. 13 Nov. 2017.

박귀숙

주소:(52828) 경남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영어교육과

이메일: gspark1113@hanmail.net

논문접수일: 2018. 03. 14 / 심사완료일: 2018. 04. 30 / 게재확정일: 2018. 05. 03